

A traditional Korean ink wash painting (hanja) of a branch with leaves and a smiling round object. The painting is done in black ink on a light background. The branch is thick and textured, with several leaves of varying sizes and shapes. A round, smiling object, possibly a fruit or a character, is attached to the branch. The overall style is expressive and minimalist.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9월 / 통권 45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아사득견연등불
我師得見燃燈佛^{하사}
다겁증위인욕선
多劫曾爲忍辱仙^{이로다.}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서는 연등부처님을 뵈옵고
다겁에 인욕선인으로 지내셨다.

기회생기회사
幾回生幾回死^고
생사유유무정지
生死悠悠無定止^{라.}

몇 번이나 태어났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태어나고 죽음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끝이 없다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참 스승 / 운성스님

불교상식 · 8

1. 불교의 특징

부처님의 말씀 · 14

알림마당 · 17

대광사 9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어린이법회 9월 활동

추석합동제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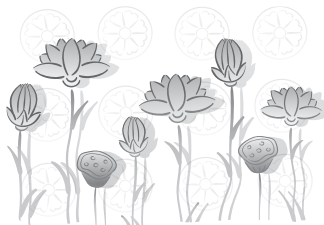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참 스승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산을 보면 그 높음을 배워야 하고 바다를 보면 그 깊고 넓은 배워야 하고 물을 보면 그 투명한 깨끗함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가르침을 고담준론으로 토설하는 교양을 갖추고 인격이 높은 스승만이 스승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스승이 되며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옛 어른이 이르시기를 “천 가지 잘 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한 가지는 배울 것이 있고 천 가지 지혜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배워서 안 될 것이 한 가지는 있다.” 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불빛이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분



간 못하게 된다. 구렁에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때 만약 불빛을 얻게 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의 길도 어두운 밤길을 가는 듯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수렁에 빠져 인생을 망칠 수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위험하고 어두운 밤길에서 불빛을 만나는 것 같이 인생의 길에서 위험을 피해 갈 수 있게 되는 행운이라.” 했다.

아함경에서 붓다께서는 스님들의 역할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다.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단월들을 이끌어 지혜의 꽃밭으로 이끄는 목자와 같다. 수행자 스승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지런히 경전을 읽고 열심히 정진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 남에게 부처님 가르치심을 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스님들이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고 영양 많은 풀이 있는 곳으로 소들을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목동과 같다.”

둘째는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고 수행도 게을리 하여 깨닫지 못하



고 알지 못하여 남을 이끌지 못하는 어리석은 스님들이다. 마치 영양 많고 싱그러운 풀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들을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어리석은 목자와 같다.” 하셨다.

좋은 스승은 나의 삶을 즐겁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행운은 참으로 어려워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 같이 어렵다.”고 법화경에서 이르셨다.

크신 스승 석가님을 만난 것은 내게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큰 행운이었다. 수도 없이 부딪쳐오는 삶의 고뇌들을 그 분에게서 치료받고 그분에게서 해결점을 찾아 그때마다 벗어나곤 했다.

어느 고달픈 순간도 그 분 있으심으로 이겨냈고 어느 힘겨운 찰나도 그 분 있으심이 극복이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고비를 넘고 그렇게 매달리며 가르치신 길을 걸어 난경을 이겼다.

가르치심 속에는 늘 길이 있었고 예불하는 순간은 늘 힘의 원천이었다. 절하는 무릎에 심장이 맞닿는 찰나가 늘 안식점이었다.

부처님과 가르치심은 세상 제일의 스승이시며 세상 제일의 의지처다.

옛 말씀에 이르시기를 “바위는 천년을 불변하는 의지를 가르치고, 하늘은 높고 높아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절을 가르친다.” 했다.

물기만 하면 근기에 따른 가르침으로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뵙기만 해도 알맞은 깨우침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역대 조사와 역대 불자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꼭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되기를 선사들과 선배 불자들은 한결같이 소망했다.

그러나 만인이 뵙기를 희망하는 부처님을 뵙고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못한 한 상인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겸손은 심지어 바위에서조차 스승을 만나지만 교만한 사람은 참 스승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다.

교만은 잘난척하는 마음이다. 이를 불가에서는 아만통이라 한다. 겸손하지 못한 아만통이 높은 사람은 부처님이 오셔도 어찌지 못하는 구제 불능의 존재다.





불교 상식

1. 불교의 특징

1)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의 중요성_ 불교(佛敎)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며,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르침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부처님 등 많은 부처님이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세상의 절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다만 세상의 진리를 먼저 깨달아 그것을 널리 알리고 가르쳤을 뿐이라고 한다. 불(佛)이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붓다의 음사로 깨달은 사람 혹은 눈을 뜬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깨달음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면 하늘나라의 최고신인 창조주도 능가하게 된다. 인도의 세계관에서 보자면 최고의 창조주는 범천 브라만이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뛰어난 신이기는 하지만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



다. 창조신인 범천(梵天) 외에 불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이들을 신들의 무리하고 해서 신중(神衆)이라고 한다.

절 입구 지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천왕도 본래 하늘에 사는 신들이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부처님께 귀의하여 영원토록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리고 스스로 발심하여 부처님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악신인 아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 부처님법을 수호하게 된다. 이처럼 불교의 진리는 최고 창조주를 초월한다. 뿐만 아니라 악신들에게도 감화를 주어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게 만들었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수많은 경전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그것은 진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진리가 우리들을 평온케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해탈은 이루게 한다.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에 신명을 바쳐 귀의하며 받든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가야 할지 자기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행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며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꽃은 우리 안에 이미 피어나고 있다.

송나라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에는 이러한 사연이 잘 담겨 있다.



봄을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신발이 다 닳도록 언덕 위 구름만 따라 다녔네.
 빈손으로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매화 가지 위에 이미 봄이 와 있었네.

우리 집 담장 안에 있는 행복의 꽃은 언제 피는가. 그것은
 진리에 눈뜨는 일에서 피기 시작한다. 그 진리에 눈을 뜨라고
 일러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삶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하겠다고 굳게 결심
 하고 그민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삶의 목표는 더욱 가까
 워질 것이고, “난 안돼”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
 람에게는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감 있고 행
 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진
 리를 깨닫고 행하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
 는가. 불교는 바로 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 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법구경] 제5 우암품(愚闇品)



고통의 직시_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궁금해 하며 해답을 찾아 해마다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은 값진 일이다. 우리의 삶이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받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힘겨워한다. 그리고 큰 병에 시달리거나 평생을 서로 의지하던 사람의 죽음과 부딪혔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듯 돌아보면 삶의 많은 시간이 즐거움보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 환희의 시간보다 슬픔과 후회의 시간이 더 길고 많다. 그리고 그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인 기쁨이요 상대적인 슬픔이다. 내가 기쁠 때 어디선가 어떤 사람은 슬픈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그뿐 아니다. 기쁨은 어느새 슬픔으로 얼굴을 바꾸는 게 다반사이다. 그렇게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새끼를 꼬듯 이어지면서 근심과 한숨 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또한 욕망은 끝이 없기에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고통이 가실 날이 없어 삶을 고행(苦海)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한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고통의 실상이 제대로 보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실상을 외면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안일에 젖



어 살아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가야하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끝도 모를 삶을 그저 어림짐작으로 사는 것이다.

모르고 사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그것이 나와 남에게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벌판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가 달려왔다. 그는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다 보니 몸을 피할 작은 우물이 있어 급한 나머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우물에는 마침 칙닝쿨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보니 우물 바닥에는 무서운 독사가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다. 두려움에 위를 쳐다보았더니 코끼리가 아직도 우물 밖에서 성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어 칙닝쿨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살펴보니 위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칙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우물 중간에서는 작은 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노리고 있었다.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칙닝쿨을 잡고 메달려 있는데, 마침 어디선가 벌 다섯 마리가 날아와 칙닝쿨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꿀



을 한 방울씩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꿀을 받아먹 으면서 달콤한 꿀맛에 취해 위급한 상황을 잊은 채, 꿀이 왜 더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빠졌다.

이 이야기는 『불설비유경(佛說譬喻經)』의 『안수정등도(岸樹井藤圖)』에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이다. 여기서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칠폰꿀은 생명 줄을, 검은 쥐와 흰쥐는 밤과 낮을 의미한다. 작은 뱀들은 가끔씩 몸이 아픈 것이고, 독사는 죽음이며, 벌 다섯 마리는 인간의 오욕락(五欲樂)을 말한다. 오욕이란 재물욕·색욕·식욕·명예욕·수면욕을 말한다. 이와같이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탐욕의 꿀맛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망은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은 지혜를 흐리게 한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없애고 참된 지혜를 발현토록 해야한다.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날 때 우리는 코끼리의 위협과 독사의 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깨닫는 순간 코끼리도, 우물도, 두 마리의 쥐도, 독사와 뱀이 혀를 내미는 끔찍한 현장도 말끔히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품 뱀의 품

12. 성자의 경 [Muni-sutta]

1. [세존] “친밀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생겨난다. 거처도 두지 않고 친밀한 것도 두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성자의 통찰이다.
2. 이미 생겨난 것을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겨나는 것에 들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자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선인은 적멸의 경지를 본 것이다.
3. 근본을 살피어 그 씨앗을 부수고, 그것에 물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멸의 끝을 본 성자, 사려를 버리고 헤아려지지 않는 자이다.
4. 모든 존재의 처소에 대하여 잘 알아,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는 탐욕을 떠난 무욕의 성자이다. 피안에 도달해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5. 온갖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슬기롭고, 여러 사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갈애를 끊어 해탈한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6. 힘이 지혜에 있고, 계행과 덕행을 지키고, 삼매에 들고, 선정을 즐기며, 마음챙김이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 황무지가 없고, 번뇌 없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7.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은 성자,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8.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목욕장에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9. 벼들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하여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아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10. 젊을 때나 중년이나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자제하여 자신을 다스리며 악을 행하지 않아, 괴롭혀질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는다.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11. 윗부분이건 중간 부분이건 남은 것이건,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활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다면,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12. 젊어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성적 방종을 끊고 유행하는 성자, 취하고 방일하지 않아 해탈한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13.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물결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 없는 사람,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14. 재가자는 아내를 부양하고, 덕행자에게는 내 것이 없어, 들은 처소와 생활양식이 같지 않다. 재가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기 어렵지만, 성자는 항상 삼가며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15.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재가자는 멀리 떠나 숲 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 그 성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 다음호에 계속 -



대광사 9월 법회 및 행사

- ◆ 9월 3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1시 대웅전
- ◆ 9월 4일 불교대학 2학기 개강
- ◆ 9월 10일 음력 8월 초하루기도 입재
- ◆ 9월 12일 초하루기도 회향
- ◆ 9월 24일 추석합동차례재 오전7시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태백동 금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7. 20 ~ 8. 22)

홍승운 40,000	(주)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정대식 20,000	김인복 10,000	김지현 100,000	공상섭 30,000
홍예현 50,000	박덕선 100,000	진해 행복한 태권도 50,000	
진성화 30,000	현경숙 10,000	오미라 30,000	이봉숙 10,000
박점수 10,000	찬불단 50,000	이상현 20,000	윤숙희 10,000
정진이 10,000	황두관 10,000	민범순 금식소 신발 6개	
서경스님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백중공양 꽃공양

만법수 20,000	수안문 20,000	금강심 10,000	혜연심 20,000
반야지 20,000	강란 30,000	법안성 50,000	대도행 50,000
성불심 20,000	인혜심 20,000	자성심 20,000	보리장 10,000
안병호 10,000	강상호 30,000	강상희 20,000	일련심 10,000
길상행 20,000	환희장 30,000	도광심 20,000	김정애 10,000
이정희 10,000	공미애 10,000	만법화 20,000	감로행(13기) 20,000
무기명 20,000	배선희 20,000	진실행 30,000	김인복 20,000
무애심 20,000	월정심 20,000	정법행 20,000	김규상 30,000
정진화 20,000	수덕행 20,000	정광심 30,000	법계화 20,000
광대혜 30,000	금강지 20,000	안락심 20,000	조연자 20,000
대명화 20,000	삼덕화 20,000	길상화 20,000	성도행 20,000
김지원 20,000	세력혜 20,000	구옥선 20,000	구비주 10,000
수연화 10,000	김귀애 10,000	반야행 20,000	혜광화 20,000
지혜장 30,000	수선화 50,000	수심결 20,000	원지심 30,000
감로행(8기) 30,000	반야화 20,000	혜명화 10,000	평등심 20,000
자비행 20,000	이수학 10,000	노윤수 10,000	허공혜 30,000
법륜 30,000	상현성 30,000	증상혜 10,000	가행원 10,000
덕성심 50,000	원명지 20,000	천수심 20,000	대광지 20,000
안종부 20,000	묘덕장 20,000	관음화 20,000	무변혜 50,000

**♥ 백중기도 공양자**

황석태 200,000	이미정 100,000	성재호 500,000	김기만 50,000
강현준 600,000	주계식 50,000	한찬상 400,000	배종각 150,000
홍옥영 200,000	안종권 100,000	김정애 100,000	김성문 100,000
박춘수 500,000	박종호 30,000	김인복 200,000	하형규 300,000
류혜숙 300,000	정순자 50,000		

♥ 초하루기도 공양

대도화 300,000 강현준 100,000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9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1. 6,7세 학부모 개별 상담**

○ 기간 : 2018년 9월 12일(수) ~ 14일(금)

2. 추석맞이 전래놀이 한마당

○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9월 어린이법회 활동****1. 2학기 어린이법회 개학**

○ 기간 : 2018년 9월 8일

2. 나란다축제

○ 일시 : 2018년 9월 8일

○ 장소 : 동국대

○ 대상 : 4, 5, 6학년

추석합동재

- 일시: 9월24일(월) 오전7시 설법전
- 동참금: 영가1위당 2만원
- 문의 및 접수(종무소) ☎545-9595

대인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